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터

한전원자력연료(주)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환하게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며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모두 잘 알고 있지만 회사의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작년을 잠시 되돌아보는 것도 어려운 금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유가가 배럴당 4~50불에 거래되던 것이 150불까지 치솟더니 최근에는 30불대로 급락하기도 하여 예견되었던 경제 체제를 혼란에 몰아넣었고 불황을 재촉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서프라이임 모기지

금융 파동이 급기야는 세계의 금융 대란으로 이어지게 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급속히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금년은 작년에 이어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은 지금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의 흐름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제 민간 회사에도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도 예외일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회사의 장단기 비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우리가 현재 잘 하고

있는 핵연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기술은 이제 세계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핵연료를 설계하고 제조해야 하겠다. 더욱 경쟁력을 높여 세계의 전문 회사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겠다.

둘째,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기틀을 잡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사업을 통해 2009년 초에 출범할 제어봉(CEA) 설계·제조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20~160만 불을 수출하거나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진출 기지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우리와 손잡고 일하겠다는 세계 유수 전문 업체가 손을 내밀고 있다. 이들과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회사의 발전, 즉 수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2011년에 약 1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의 원천 기술이 확보되는 X-Gen 핵연료가 완성되면 그때는 5대양 6대주를 자유로이 누비며 수출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회사의 경수로 핵연료 생산 시설 규모가 연산 550톤 정도 수준이지만 운영 측면을 잘 고려하면 최고 750톤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인력 배양에 힘쓰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할 것이다. 국내 원전 증설에 따른 생산 물량 증가와 해외 수출 등 이러한 모든 것은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핵주기 전문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행 핵주기의 우리나라 부분을 뺀 나머지 업무인 핵연료 성형 가공 및 제조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노심 설계와 안전성 분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언젠가는 핵연료 변환과 농축 업무도 우리 회사가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행 핵주기 역시 2030년 이후에 실용화될 제4세대 원전인 GEN IV 고속로 원전의 핵연료 개발도 회사의 중점 업무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원자로형인 수소 생산로 및 중소형 SMART 원자로의 핵연료 개발에도 중점을 두도록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여가야 한다.

다섯째, 회사의 발전과 비전에 걸맞은 회사 이미지의 제고에 힘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다. 기업 문화는 참된 가치를 창출하게 하여 생존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윤리 경영

또는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회사는 결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문화가 KNF에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이다.

KNF는 가장 능력 있는 회사일 뿐 아니라 깨끗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어느 누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집중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할 것이며, 과거의 노사 관계보다 발전적인 열린 노사 문화, 신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변화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도전은 아름답고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변화와 도전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자만이 밝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저 넓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KNF 핵연료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